

## 社會主義體制變化에 대한 展望\*

梁 好 民

### (1)

壯大한 歷史의 드라마는 그것이 演出되는 동안은 終幕을 알리지 않는다. 1989년 가을 以來로 展開된 一聯의 世界史的인 事件들, 즉 東區諸國에서의 民主化의 도미노現象, 伯林장벽의 崩壞, 東西獨逸의 통일, 蘇聯의 8월 쿠데타失敗, 그리고 그 餘波속에서 斷行된 蘇聯共產黨의 解體, 聯邦構成共和國들의 主權獲得, 이상의 過程 속에서 進行된 東·西冷戰의 急速한 結焉 등은 가장 銳利한 洞察力을 가진 사람들도 미처 豫見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모두는 樂觀, 悲觀, 懷疑가 交錯하는 가운데서 事態의 해결을 暗中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 公정한 평가일 것이다.

通稱 社會主義國家로 불리워온 이 나라들의 內部的 變革이 共產黨의 一黨獨裁에서 벗어나 政治的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와 文化의 多樣化를 志向한다는 點에서는 最大公約數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體制가 어떻게 變化하고 이 나라들의 將來가 어떻게 될것인가를 展望한다는 것은, 특히 蘇聯과 같이 民族構成이 錯雜하고 70여년의 共產黨 統治가 뿌리를 내렸던 大國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世紀半의 傳統을 가지고있는 近代社會主義는 廣範한 思想과 운동의 형태를 갖추면서 發達해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社會主義란 개념의 관찰을 맑스-레닌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共產黨體制에 局限시키고자한다.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의 基조연설임.

그리고 社會主義體制란, 共產黨國家의 公式的인 政治·經濟·社會制度와 黨組織은 물론, 그것을 움직이는 超法律的 統治方式, 그리고 制度를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體系의 全般을 포괄하는 概念으로 理解하고자한다. 東歐와 蘇聯의 變革樣相은 複雜하지만 한마디로 共產黨一黨獨裁體制에 대한 市民革命의 勝利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는 위로부터, 폴란드, 東獨 및 그밖의 나라들은 밑으로부터, 그리고 蘇聯의 경우는 위로부터 觸發되고 밑에서 結末을 낸 그런 市民革命으로 …… 그렇다면 1989년 봄의 中國大陸의 天安門悲劇은 挫折된 市民革命이 될 것이다. 北韓, 越南, 쿠바등에서는 아직은 可視的 市民革命의 징후는 없다. 東歐와 蘇聯에서는 共產黨獨裁體制가 무너지고 自由選舉에 의하여 權力이 再編成되는 한편, 世稱 命令經濟制度는 自由經濟의 그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言論에서 宗教에 이르기까지 市民의 權利는 크게 伸張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政治·經濟·社會體制는 엄밀한 意味에서는 이미 從來의 社會主義體制는 아니며, 脫社會主義의 改革이 過渡期的 混亂 속에서 進行되고 있다.

“變하면 變할수록 옛모습 그대로다”라는 佛蘭西의 政治格言이 있다. 이 말은 專制君主制에서 民主共和制으로, 다시 王政復古로 展開되었던 프랑스革命 當時의 상황의 한 斷面에는 適合한 表現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東歐와 蘇聯의 變化가 “옛 모습”으로 復古한다는 것은 이 時點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社會主義體制를 떠받들고 있었던 馬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그 權威를 상실했고, 體制의 核心인 黨, 軍隊, 秘密警察은 解體가 아니면 改編되고 있다. 그리고 레닌이 “모든 民族主義는 共產主義의 敵”이다 規定했던, 그 民族主義가 蘇聯과 유고슬라비아 안에서 激烈하게 抬頭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베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티, 民主化는 그의 初期의 意圖와는 달리 一黨體制의 테두리를 넘어 政治의 多元化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促進시켜온 것이다. 黨官僚와 執權層의 부패와 횡포를 制度化한 全體主義的 前衛黨의 獨裁가 破産을 宣告하고 낭비와 非能率과 囂령을 特徵

으로 하는 指令式 計劃經濟가 完全한 機能喪失을 實證하고 남은 狀況에서는 레닌, 스탈린, 毛澤東등 그 누구의 權威로도 社會主義體制를 좀처럼 復元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에트勢力圈의 崩壞는 蘇聯이 經濟의으로도 軍事의으로도 더 以上 大帝國을 유지할 수 없는 狀況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직 社會主義體制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北韓, 中國大陸, 越南등에서는 蘇聯과 東歐에서 밀려오는 衝擊波 속에서 不安해하고있다. 남은 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곳에서는 “社會主義의 優越性”과 그 “必然的 勝利”를 부르짖으면서 自由, 人權, 民主主義, 複數政黨制를 “부르조아의”이라고 舊態依然하게 誹謗, 思想統制와 이데올로기教育을 強化하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을 無條件 “帝國主義”라고 규탄하면서 強硬鬭爭으로 活路를 열 수 있었던 1950~1960년대와는 달리 先進工業國들과의 經濟協力 없이는 存續할 수 없다는 點에 根本的인 딜레마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그러면 社會主義體制的 變化는 어떻게 進行될 것이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樣相은 나라의 條件에 따라 다를 것이요, 필경은 어떠한 政治勢力이 權力을 담당하느냐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다. 一黨獨裁가 붕괴되면서 東歐와 蘇聯에서는 多黨制가 出現하고 있으며 經濟部門에서는 많은 國有企業들이 私有로 轉換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複數政黨制, 自由選舉, 人權, 司法部의 獨立을 礎石으로 하는 民主主義制度, 經濟에서는 高度의 公益性을 띠는 產業과 서비스業體의 國公有化 또는 公共管理는 유지하지만 그 밖의 企業들은 계속 民營化하고 自由市場을 創設하는 混合經濟의 方向으로 制度가 改編되고있다. 여기에다 現代民主主義의 思潮가 견지하고 있는 大衆의 社會福祉의 伸張은 當然한 目標로 設定되고있다.

그러나 以上은 一般的一原則의 方向일뿐 社會主義國家들은 改革의 具體的 方案에 있어서는 어떻게하면 좋을런지에 苦悶하고 있으며, 蘇聯같은 나

라는 茫然自失하고있다. 이른바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에 관해서는 러시아 10月革命後 레닌에 의하여 그 原則이 제시되었고 스탈린에 의하여 하나의 모델(模式)이 形成되었으며 이것은 모든 社會主義國家에서 絶對化-普遍化되었던 것이다. 그 모델은 지금 破産되었지만 거꾸로 “社會主義에서 資本主義에로의 移行”에 관해 明確한 理論을 提示한 사람도, 歷史的 經驗도 없다. 따라서 混亂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社會主義體制的 變化에 대한 展望에는 舊制度의 批判과 오늘의 先進資本主義에 관한 知識이 基礎를 이루고 있지만, 改革의 方向에는 主觀的 政治思想이 反映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急進的인 사람들은 過去의 社會主義制度를 總體의 으로 清算하고 自由經濟로의 全面的 改編을 주장한다. 한편 穩健한 改革派들은 西歐型 社會民主主義를 理想으로 한다. 나의 個人的 見解로는 後者의 變化가 적어도 現在로서는 穩當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奇異한 것은 舊共產黨의 모든 殘存勢力이 過去에는 “修正主義”, “機會主義”, “부르조아民主主義”로 一貫하여 非難해온 西歐型社會主義 또는 社會民主主義로 黨名을 바꾸고 그 간판밑에서 脫出口를 찾고있는 現象이다. 이것은 共產主義에 대한 大衆의 信賴가 크게 추락했다는 것과 社會民主主義의 共產主義에 대한 勝利를 의미한다. 그러나 現在의 非共產主義의 社會(民主)主義는 過去 1世紀半동안 屈折은 많았으나 獨自의인 思想과 運動의 系譜를 發展시켜왔다. 各國의 共產黨이 大勢에 밀려 성급하게 자기의 黨名을 歷史的 政敵의 黨名으로 바꾸고 그들의 綱領과 政策을 借用했다고해서 人民大衆의 信任을 獲得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激動하는 歷史的 轉變期는 종래의 政治적 價值觀을 逆轉시킨다. 그리하여 어제의 進歩와 革新이 오늘에는 保守와 反動으로 어제의 保守와 反動이 오늘에는 進歩와 革新으로 바뀌고있다. 지금 스탈린主義를 歷史的 進歩로, 議會民主主義를 保守反動으로 보는 視角은 共產主義者들 안에서도 사라지고있다. 또한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社會主義나라들에서는 資本主義의 市場經濟는 榨取와 抑壓을 恣行하는 惡의 勢力으로 규탄되어왔지만 지금

은 豐饒와 自由를 保障하는 萬能의 神처럼 崇拜되고 있다.

중래의 社會主義體制가 民主主義와 自由의 理念에서 변화하리라는 것은 過去에 대한 反動에서 오는 當然한 趨勢다. 共產黨의 殘余分子가, 軍隊가, 또는 秘密警察이 이 趨勢를 막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威脅은 계속 남아 있다.

그 첫째는 民主化에로의 過渡期的 混亂狀態에서 수십개의 政黨이 亂立하여 서로 角逐하는 중에 리더쉽이 흔들려 無政府狀態가 造成될 때는 自由에 대한 感激은 사라지고 秩序와 社會安定을 希求하는 人民들의 心情을 포착하면서 獨裁政黨이 대두할 찬스가 생길 것이다.

둘째로는 社會主義國家들의 새로운 民主勢力이라고 해서 破綻狀態에 빠진 經濟를 最短時間內에 發展시켜 大衆의 消費慾求를 滿足시키고 生活水準全般을 向上시킨다는 것은 奇蹟에 가까운 일이다. 이 나라들은 利潤獲得과 效率性提高와 開發을 基盤으로하는 資本主義制度의 導入으로 經濟成長에서 一定한 成果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制度는 尖端技術과 컴퓨터와 國際交流와 情報化時代에 엄청나게 변모하고 있어서 過去의 概念으로는 理解하기 어렵게 되었다고는 해도 그 自體의 病理를 수반한다. 이를테면 極端的 利己主義, 拜金主義思想, 利潤至上主義는 그것을 견제하는 強力한 勢力이 없을 때는 麻藥, 섹스產業, 타락, 享樂產業, 反社會的 投機, 相對的 貧困과 不平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資本主義國家들의 現實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은 幻滅의 悲嘆에 젖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잃어버린 獨裁權力에 鄉愁를 느끼는 舊勢力이 파고들 危險性이 없지 않다.

셋째의 危險性은 多數民族聯邦의 경우 多民族主義勢力들이 國境, 資源, 領土, 宗教紛爭을 일으켜 收拾하기 어려운 內亂狀態로 몰고갈 可能性이 있다. 지난날의 발트3國의 危機와 1988년의 Nagorno-Karabach地方의 流血暴動과 오늘의 세르비아-크로티아間의 內戰이 그것을 豫示하고 있다. 발트諸國과 그밖의 蘇聯內民族共和國들은 自由와 主權을 획득했다. 그 餘波가

티베트, 新疆-위구르, 內蒙古에 미칠 경우 中國共產黨도 試鍊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더 큰 試鍊은 90세를 바라보는 “2萬里長征”의 頑固한 老幹部들이 不遠間 모두 사라질 때 中國大陸에서도 社會主義體制는 어떤 形態로든 變化의 危機(또는 好機)를 맞게 될 것이다.

東歐와 蘇聯의 社會主義體制는 變化의 過渡期에 있는 同時에 試鍊을 안고있다. 抽象的으로 말한다면 이 나라들의 變化樣相如何, 즉 發展의 成敗여부는 必然的으로 그밖의 現社會主義國家들의 未來를 規定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